



# m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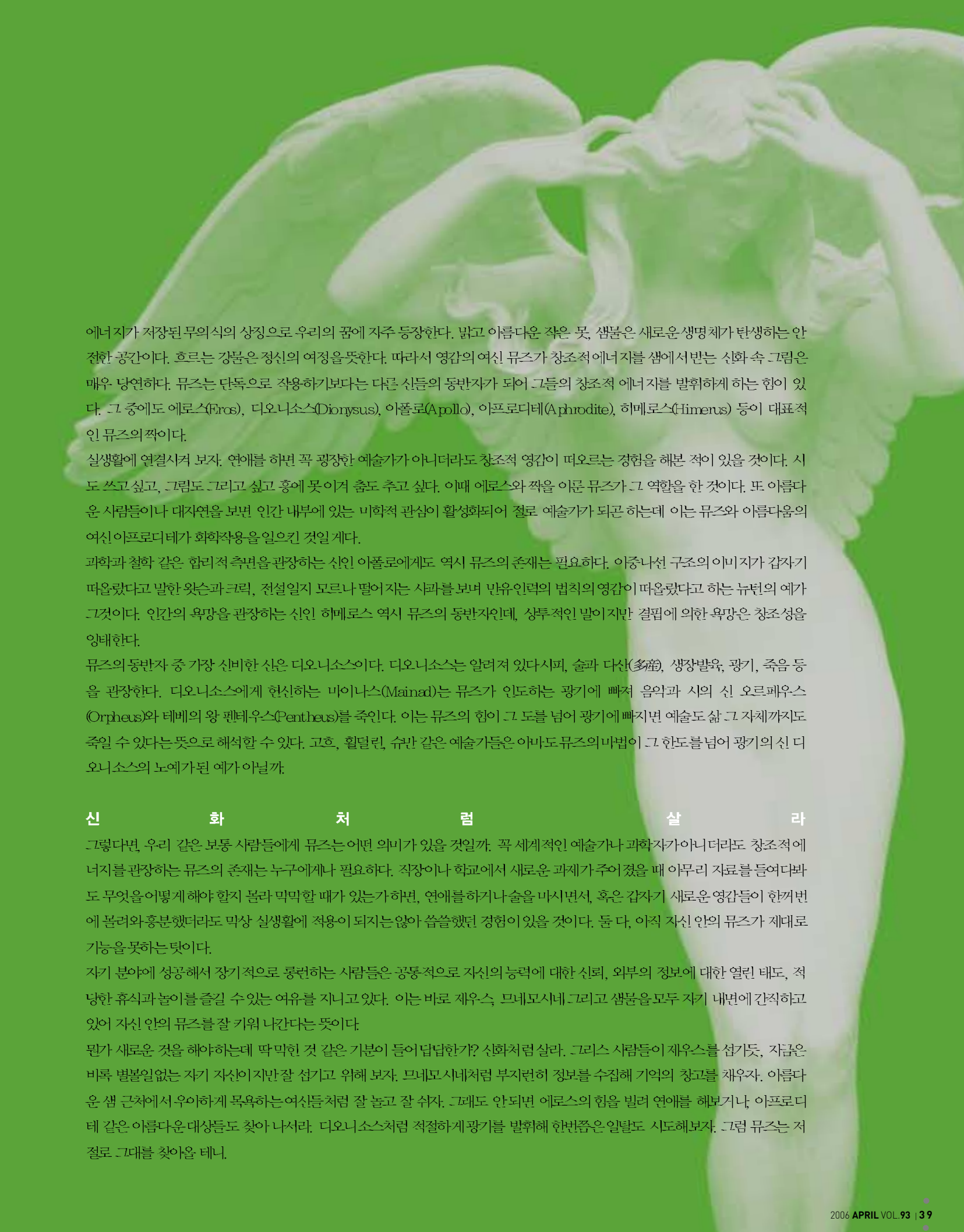
## 신화에서 걸어나온 창조적 에너지, 뮤즈

뮤즈(Muse)는 흔히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꼭 세계적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창조적 에너지를 관장하는 뮤즈의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직장에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것은 뮤즈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탓일지도 모른다.

그리스 신화속 영감의 여신인 뮤즈(Muse)는 하늘의 주재자 제우스(Zeus)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Mnemosyne) 사이에 낳은 딸로 예술과 철학, 과학을 관장한다. 신들의 신인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이 만나 뮤즈가 탄생했다는 신화에는 명백한 심리학적 의미가 들어 있다. 제우스는 가장 뛰어난 지혜와 힘을 가진 신으로서 신들의 정의에 따라 신과 인간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제우스 신과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하지만, 또 기억의 여신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되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 반짝이는 영감과 개성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일을 벌일 것같이 보이는데, 정작 새로운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꼭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를 뒷받침해 주고 검증하며 일을 추진해 내는 기억의 창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아는 게 많아 걸터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막상 남들에게 보일 만한 뚜렷한 업적을 내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신화와 대비시키자면, 전자는 제우스적인 요소만 있고, 후자는 므네모시네적인 요소만 있다고 할 수 있다.

과 학 에 도 뮤 즈 가 도 필 요 하 다  
로마신화에서 뮤즈는 물의 여신 카메나이(Camēnae)로 변한다. 뮤즈가 주로 연못, 샘물, 온천 등 물 주위에 산다는 신화적 이미지도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물은 생명과 창조의 원천이다. 거대한 바다는 인간의 모든 기억과



에너지가 저장된 무의식의 상징으로 우리의 꿈에 자주 등장한다. 맑고 아름다운 작은 못, 샘물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안전한 공간이다. 흐르는 강물은 정신의 여정을 뜻한다. 따라서 영감의 여신 뮤즈가 창조적 에너지를 샘에서 받는 신화 속 그림은 매우 낭만적이다. 뮤즈는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신들의 동반자가 되어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중에도 에로스(Eros), 디오니소스(Dionysus), 아폴로(Apollo), 아프로디테(Aphrodite), 히메로스(Himerus) 등이 대표적인 뮤즈의 짝이다.

실생활에 연결시켜 보자. 연애를 하면 꼭 굉장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창조적 영감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도 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흥에 못이겨 춤도 추고 싶다. 이때 에로스와 짝을 이룬 뮤즈가 그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나 대자연을 보면 인간 내부에 있는 미학적 관심이 활성화되어 절로 예술가가 되곤 하는데 이는 뮤즈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화학작용을 일으킨 것일 게다.

과학과 철학 같은 합리적 측면을 관장하는 신인 아폴로에게도 역시 뮤즈의 존재는 필요하다. 이중나선 구조의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한 왓슨과 크릭, 전설일지 모르나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의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는 뉴턴의 예가 그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관장하는 신인 히메로스 역시 뮤즈의 동반자인데, 상투적인 말이지만 결핍에 의한 욕망은 창조성을 잉태한다.

뮤즈의 동반자 중 가장 신비한 신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는 알려져 있다시피, 술과 다산(多産), 생장발육, 광기, 죽음 등을 관장한다. 디오니소스에게 헌신하는 마이나스(Mαινad)는 뮤즈가 인도하는 광기에 빠져 음악과 시의 신 오르페우스(Orpheus)와 테베의 왕 펜테우스(Pentheus)를 죽인다. 이는 뮤즈의 힘이 그 도를 넘어 광기에 빠지면 예술도 삶 그 자체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흐, 윌헬름 슈만 같은 예술가들은 아마도 뮤즈의 마법이 그 한도를 넘어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의 노예가 된 예가 아닐까.

## 신 화 처 럼 살 라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뮤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일까. 꼭 세계적인 예술가나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창조적 에너지를 관장하는 뮤즈의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아무리 자료를 들여다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연애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혹은 갑자기 새로운 영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흥분했다 해도 막상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아 쓸쓸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둘 다, 아직 자신 안의 뮤즈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탓이다.

자기 분야에 성공해서 장기적으로 흥행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외부의 정보에 대한 열린 태도, 적당한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있다. 이는 바로 제우스, 믈레모시네 그리고 샘물을 모두 자기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 자신 안의 뮤즈를 잘 키워 나간다는 뜻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딱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답답한가? 신화처럼 살라.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듯, 지금은 비록 별볼일없는 자기 자신이지만 잘 섬기고 위해 보자. 믈레모시네처럼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해 기억의 창고를 채우자. 아름다운 샘 근처에서 우아하게 목욕하는 여신들처럼 잘 놀고 잘 쉬자. 그래도 안 되면 에로스의 힘을 빌려 연애를 해보거나, 아프로디테 같은 아름다운 대상들도 찾아 나서라. 디오니소스처럼 적절하게 광기를 발휘해 한번쯤은 일탈도 시도해보자. 그럼 뮤즈는 절로 그대를 찾아올 테니.